



## 삼화로 달리다

가끔 생각합니다.  
경쾌한 발걸음 속에서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을 맞으며,  
색으로 물들인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나의 모습을,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함께 달려며 함께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나요?

# Contents

2014 September • October Vol.13

## S Theme

- 002 S Theme part 1**  
기술과 품질,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_삼화페인트 자보도로팀
- 004 S Theme part 2**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카로클'  
달리는 자동차에 행복을 전하다



- 006 S Theme part 3**  
라이벌,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달린다
- 008 S Theme part 4**  
테마 보고서  
\_언제나 달리는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이다



## 삼화로 달린다

가끔 생각합니다.  
경쾌한 발걸음 속에서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을 맞으며,  
색으로 물들인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 나의 모습을,  
꿈을 향해 달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고  
함께 달리며 함께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시나요?



## S Focus

- 010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  
페인트,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준 한마디  
\_원당한도상사 박정관 대표
- 012 삼화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20년 차 영업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_PCM팀 오전근 부장
- 014 가족, 사진 그리고 이야기**  
나의 가족이 바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_삼화페인트 전창민 과장
- 016 컬러매거진**  
The 3rd SAMHWA Color Talk Seminar 2014  
컬러와의 조우
- 018 페인트레시피**  
스케치페인트 하나면 충분,  
낙서가 가능한 우리아이 책상 만들기

## S Life

- 020 삼화가 만나다**  
미래 그리고 철학, 더 그린관에 담아내다  
\_내공사 더 그린관 김현직 부장
- 022 삼화페인팅스토어**  
삼화페인팅스토어 6, 7, 8호점 오픈
- 024 뉴스포커스**
- 026 페인트포커스**
- 027 삼화나눔이야기**  
삼화페인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보릿,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 탄생!
- 028 컬러로 지도를 밟다**  
커피와 바다가 만난 그곳, 강릉  
없던 낭만도 생길지어대  
\_강원도 강릉
- 030 카툰 in 마켓**  
남자들의 삼화페인트 이야기 <마녀사냥편>
- 031 Theme로 말해요!**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그 노래'
- 032 문화를 드립니다!**  
독자 이야기가 담긴 빨간 우체통  
Samhwa & Quiz





큰 맘먹고 구입한 차가 출고됐을 당시의 그 모습으로 끝까지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자동 세차장의 브러시부터 접촉사고까지 차 표면의 안녕을 위협하는 요소는 많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원래 색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다. 삼화페인트 자보도료팀은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끊임없이 연구와 제조를 거듭하며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삼화페인트  
자보도료팀

기술과 품질,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다



#### 고객이 꿈꾸는 페인트를 만든다

자동차 산업은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그 규모는 실로 엄청나다. 그래서 자동차 도료산업은 페인트 업계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표현하기도 한다. 이미 자동차 페인트 시장은 선발업체들의 선점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삼화페인트는 틈새시장을 파고들었다. 그것이 바로 자동차 보수용 도료다. 자동차 튜닝산업의 발전과 함께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보수용 도료산업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해 삼화페인트 입장에서든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자보도료팀의 역사는 짧지 않지만 팀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달리기 시작한 것은 4년 전부터라 할 수 있다. 그 동안은 도료 컬러에 대한 부문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보도료에서 색을 만들어 내는 컬러 배합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컬러 배합 시스템을 보강하며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지금의 자보도료팀이 완성된 것이다.

4년이라는 시간은 짧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자보팀이 이뤄낸 성과는 결코 가볍지가 않았다. 삼화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핵심인 '카로클'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개발한 것이다. "카로클 브랜드를 개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는 도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의미가 큼니다. 삼화페인트의 자동차 보수용 도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죠." 자보도료분야에서 품질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 중 하나가 컬러 데이터베이스이다. 모든 페인트 회사들이 이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삼화페인트는 타사의 이러한 상황을 보란 듯이 뒤집고 단시간 내에 4만 배합이라는 컬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국내 차량 컬러는 2천 배합밖에 안 됩니다. 4

만 배합이면 전 세계 웬만한 컬러는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동시에 마련하게 되었죠."

#### 최고의 기술, 고객만족의 품질

카로클이 출시되면서 삼화페인트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삼화페인트 = 건축용 페인트'라는 공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분야의 페인트 라인업을 갖춘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공업사나 대리점에서도 카로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입소문을 통해 시장 규모를 넓혀가고 있다. "처음 출시 되었을 땐 다들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3년 동안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사람들의 입소문도 퍼지면서 점점 카로클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자보도료팀은 지금까지의 노력의 결과로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도 얻었다. 수단의 페인트 업체인 모한디스와 자동차용 페인트 생산 계약을 맺은 것이다. 국내 페인트회사가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 손을 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수단 자동차용 페인트 시장은 이집트 브랜드가 장악해 오고 있는 시점에서 카로클의 진출은 더욱 의미가 깊다. 삼화페인트는 모한디스에 원료를 공급하고, 자동차 페인트 조색에 들어가는 기술이전을 해주기로 했다.

자보도료팀의 노승대 부장은 말한다. "단기적 목표로 마켓쉐어 20%를 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시장 변화 추이에 촉을 세우며 대응한다면 현재 타사가 지배하고 있는 시장을 삼화페인트 쪽으로 돌리는 건 시간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기목표는 자동차가 다니는 세계 모든 곳에 카로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팀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 고객만족의 품질'을 가슴 속에 품고 삼화페인트 자보도료팀은 오늘도 자동차와 함께 달린다. S

## 자동차 보수용 페인트 '카로클' 달리는 자동차에 행복을 전하다

하루에도 수천 대의 차량이 탄생하고 색을 입는다.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자동차 도로와 함께 자동차 보수용 도료의 발전이라는 전환점이 되었다. 국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은 1,2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에 혜성처럼 나타난 브랜드가 있으니 출시와 함께 탁월한 품질로 국내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삼화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도료 '카로클'이 그것이다.



### COLOR로 자보시장을 넓히다

자동차 보수용 COLOR 제품에는 BASE 제품과 TOP-COAT 제품이 있으며, 자동차 컬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컬러가 많아 컬러 시장 선도하는 도료 메이커는 많지 않다. 카로클 제품은 BASE 제품으로 STARBASE을, TOP-COAT 제품으로 STARCOAT를 출시 후 생산량뿐만 아니라 컬러 품목을 지속적으로 늘여가고 있다. 컬러의 정확성, 작업성, 우수한 부착성 등 품질이 우수하다는 시장의 반응을 얻고 있으며, 신속한 컬러 배합 및 인터넷을 통한 DATA BASE를 구축함으로써 사용고객을 만족시키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투명도료 분야의 블루칩 '고기능성 투명도료'

국내 및 글로벌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자동차 보수용 투명도료 시장에서, 삼화페인트는 고기능성 투명도료인 STARCLEAR SC8212를 출시하여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고 있다. SC8212는 작은 스크래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고기능성 도료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스크래치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먼지에 의한 스크래치 또한 방지해준다. 고기능성 외관과 작업성도 우수하여 카로클의 기술력을 시장에 인식시키고 있다. 또한 브랜드 신나, 유성 타입의 정전 세척제 등 신제품도 속속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 투명도료 시장의 중심 'HS 크리어 코트'

카로클의 다양한 제품이 자동차 보수용 도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주목해야 하는 제품은 바로 'HS 크리어 코트 투명도료'다. 자동차 보수용 도료인 'HS 크리어 코트 투명도료'는 충돌이나 접촉 사고로 자동차 외형이 변형되거나 도막이 손상되었을 경우 외형 복원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료 중, 색상을 발현하는 유색 상도 도장 후 마지막으로 도포되는 투명한 층의 도료를 말한다. 국내 자동차 보수용 투명도료 시장은 삼화페인트를 비롯해 국내업체들과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이며, 해외 차종 정비업체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가의 수입 제품과 국내 차종에 주로 사용되는 중저가의 로컬 제품으로 시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삼화페인트 자동차 보수용 도료 연구팀은 국내 차종은 물론, 해외 고급 차종에도 적용 가능한 고품질의 특성을 구현하고, 국내 로컬 제품과 차별되는 기술이 부가된 2100HS, 3100HS, 4100HS 등 HS 크리어 코트 투명도료 3종을 시장에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카로클은 투명도료 시장확대를 위하여 VOC규제에 만족하는 다양한 고객 중심의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특히 범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은클리어'를 출시하여 향후 지속적인 거래선 판촉과 기술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생산성-에너지 절감형 투명도료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밀착형 시장 조사를 통해 소비자 요구를 수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여 시장 선점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고투자를 확보할 예정이며,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삼화페인트가 세계 도료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글로벌 리더 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S

### HS 크리어 코트 라인업



육지감이 뛰어난 2100HS

아크릴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하는 하이슬리드 타입의 2액형 우레탄 도료로 환경규제 (VOC 500g/L)를 만족하는 제품이다. 뛰어난 육지감과 폴리싱성이 우수해 전체 도장용으로 적합하다.



건조속도가 가장 빠른 3100HS

아크릴 폴리우레탄 수지를 사용한 하이슬리드 타입의 2액형 우레탄 도료로 환경규제 (VOC 500g/L)를 만족하는 제품이다. 빠른 건조로 경제적이며 내용제성이 우수해 전체/부분 도장에 적합하다.



외관이 우수한 4100HS

건조성이 2100HS와 3100HS 보다 다소 느리지만 외관이 가장 우수한 제품이다. 고광택의 외관을 얻을 수 있어 전체 도장용으로 적합하며 퍼짐성과 스프레이 작업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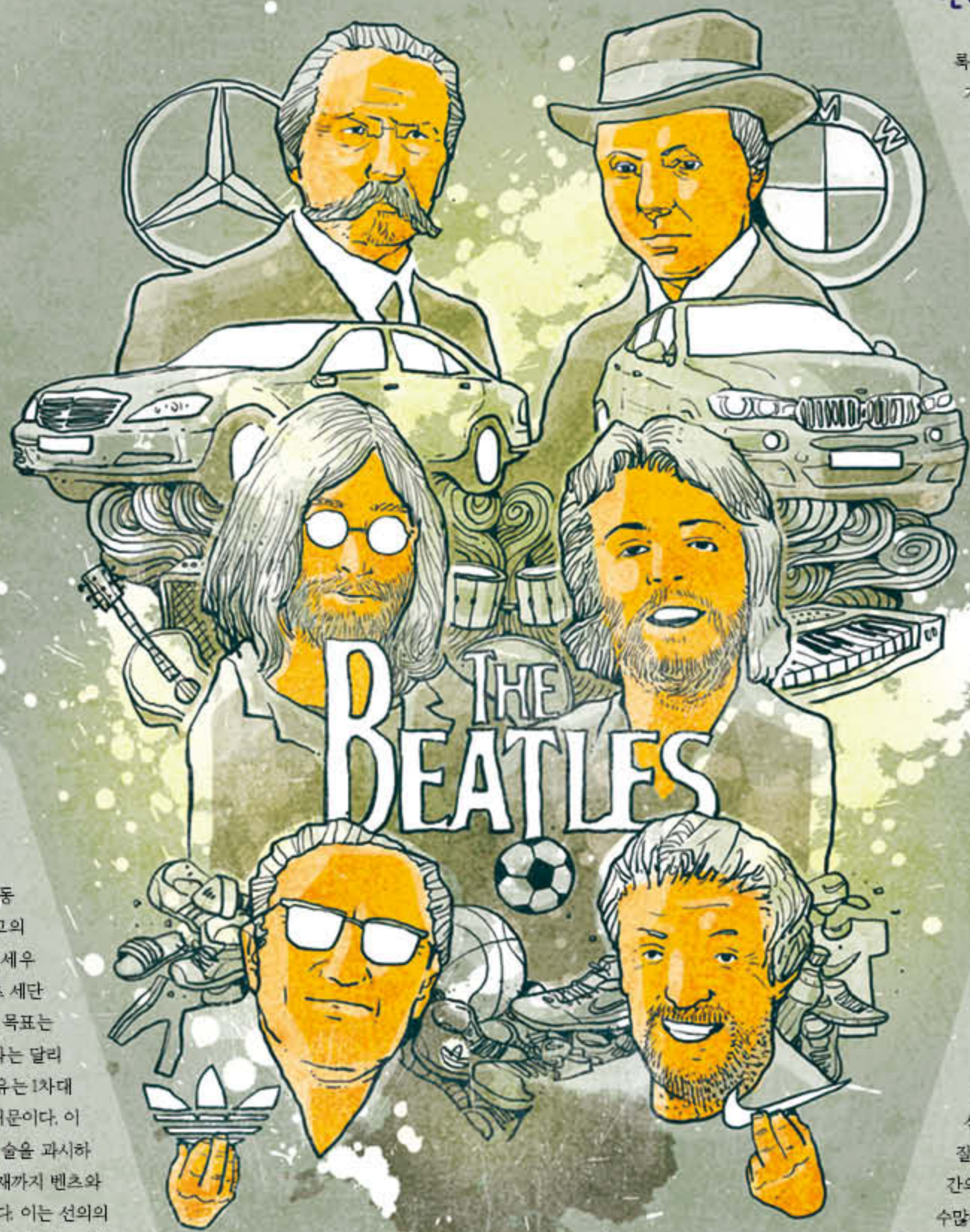
## 라이벌, 그들이 있기에 오늘도 달린다

훌륭한 라이벌을 가진 것보다 더 좋은 창조 의 원천은 없다. 겉으로는 경쟁 상대지만 시대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동지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라이벌' 이라 할 수 있다. 시대를 앞서가며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가렸던 영원한 동반자이자 라이벌. 그들이 있기에 새로운 변화를 향해 오 늘도 달린다.

### 독일차의 자존심으로 함께 달린다

## 풍격의 '벤츠' vs 럭셔리 'BMW'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두 자동차 회사의 화려한 역사가 시작했다.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이자 세계 최고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얘기다. 최고 품격을 내세우며 고급차 시장을 주도한 메르세데스 벤츠와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럭셔리 스포츠 세단의 입지를 굳힌 BMW. 서로 추구하는 성격은 달랐지만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목표는 같았다. 시작부터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로 출발한 메르세데스 벤츠와는 달리 BMW는 항공기엔진을 만들던 회사에서 출발했다. 그들이 자동차로 눈을 돌린 이유는 1차대전 패전국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항공기 엔진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두 라이벌의 만남이 시작된다. 두 회사는 각종 레이스 대회에서 서로의 기술을 과시하며 경쟁하듯 우승했고 지금의 세계적인 명차가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과거에서 현재까지 벤츠와 BMW는 성공의 상징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 받는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잡았다. 이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함께 달려온 두 회사의 끈끈한 라이벌 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이순간도 벤츠와 BMW는 남보다 앞 선 기술을 선보이며 독일을 넘어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중심으로 함께 달린다.



### 같지만 다른 라이벌로 전설을 향해 달린다

## 반항의 '존 레논' VS 감성의 '폴 매카트니'

록음악계의 전설이 된 비틀즈. 그들이 세계적 인기를 얻기에는 두 천재의 불꽃 튀는 경쟁이 있기에 가능했다. 폴 매카트니가 대중적으로 크게 사랑 받을 만한 팝송을 만드는 데 천재적 재능을 발휘했던 데 반해, 존 레논은 깊은 자의식과 선동적인 메시지를 담은 곡들을 주로 만들었다. 바로 이 부분이 두 사람이 가장 대비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록 음악이 내포하고 있는 저항적 이미지를 높게 평가하는 평론체계에서 존 레논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폴 매카트니는 꾀어나 억울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그는 존 레논이 떠나간 이후로도 30년 동안이나 지지치 않고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보여주었지만 평단과 대중의 평가라는 저울추는 여전히 존 레논 쪽으로 기울어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존 레논 자신은 폴 매카트니의 음악성을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하며 그를 부러워했다. 평생 라이벌이자 친구였던 존 레논이 세상을 떠나며 둘의 불꽃 튀는 경쟁은 끝났지만, 폴 매카트니는 살아남아 존 레논과 함께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2003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펼친 공연이다. 이날 공연에서 폴 매카트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만 관객이 운집한 가운데 감격에 겨워 이렇게 외쳤다. '비틀즈 시절부터 꿰왔던 꿈 중의 하나가 바로 러시아 공연이었다. 이제라도 그 오랜 꿈이 실현되어 기쁘다!'라고. '비틀즈'라는 하나의 공간에서 같지만 다른 두 천재의 경쟁은 전세계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전설을 넘어선 전설로 우리들 가슴 속에서 오늘도 달린다.

### 스포츠란 이름아래 열정과 도전으로 달린다

## 열정의 아디다스 vs 도전의 나이키

스포츠산업의 성장과 함께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 탄생했다. 바로 스포츠용품 브랜드 아디다스와 나이키다. 유럽을 대변하는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는 1980년대 까지 세계 스포츠 마케팅계의 제약으로 군림했다. 이와 반대로 미국의 나이키는 1980년대 이후 참신하고 획기적인 스타마케팅을 앞세워 아디다스의 아성을 허무는데 성공했다. 1960~1980년대 아디다스는 적수가 없었다. 특히 축구분야에서는 '아디다스 축구화를 신지 않으면 일류 선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했다. 하지만 미국시장을 평정한 나이키의 등장은 스포츠용품 브랜드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나이키 신화의 시작은 운동화 '와플 트레이너'의 탄생에서 시작한다. 와플 격자무늬를 밑창으로 사용한 '와플 트레이너'의 인기로 나이키의 이름은 전세계에 알려지게 된다. 이후 나이키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아디다스를 넘어 세계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한다. 두 회사의 라이벌구도는 이때부터 정점을 찍게 된다. 각종대회의 경기후원과 유명 스포츠 선수후원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지 알 수 있다. 그 예가 얼마 전에 열린 브라질 월드컵 4강전을 들 수 있다. 4팀 중 나이키와 아디다스 브랜드를 입은 팀이 2팀씩 올라가며 서로 간의 대결이 성립됐고 이는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었다. 이들의 전하는 캠페인 슬로건은 스포츠계의 수많은 전설과 어우러져 지구촌 소비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그것이 기업 이미지를 더 고양시키고 두 회사는 다시 소비자를 감동시키는 이벤트와 스토리로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흔해빠진 운동화를 도전과 열정으로 상징화하며 브랜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성장한 아디다스와 나이키. 이들은 또 다른 열정과 도전을 향해 계속 달린다. S

테마보고서 | 통계로 본 직장인의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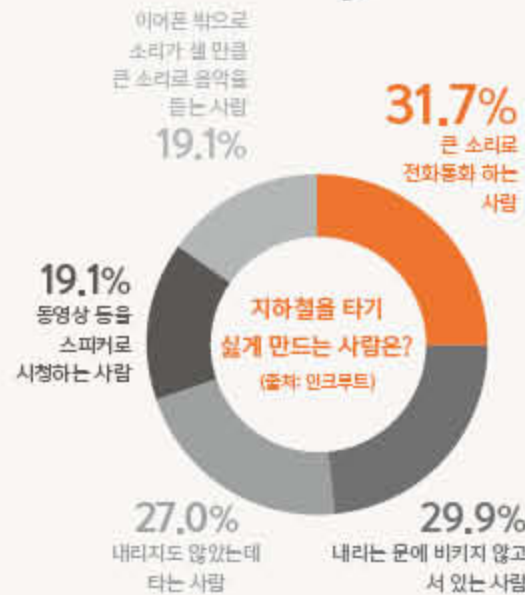
## 언제나 달리는 우리 '대한민국 직장인'이다

"늦었다. 늦었어. 아주 중요한 날인데"라고 중얼거리며 뛰어가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흰 토끼를 기억하는가. 이 토끼는 오늘날 직장인들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변하고 있다. 가끔은 자신이 토끼같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항상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조금도 쉴 틈이 없고, 속은 쥐어짜는 듯 아프고, 그리고 그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현대의 직장인은 고난의 연속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직장인들의 일상을 함께 돌아보자.



### 07:00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비비며 정신 없이 출근하는 직장인들.  
하루 일과의 시작인 회사로 출발!



### 10:00

헐레벌떡 정신 없이 도착한 회사 직장인들이 가장 바쁜 업무시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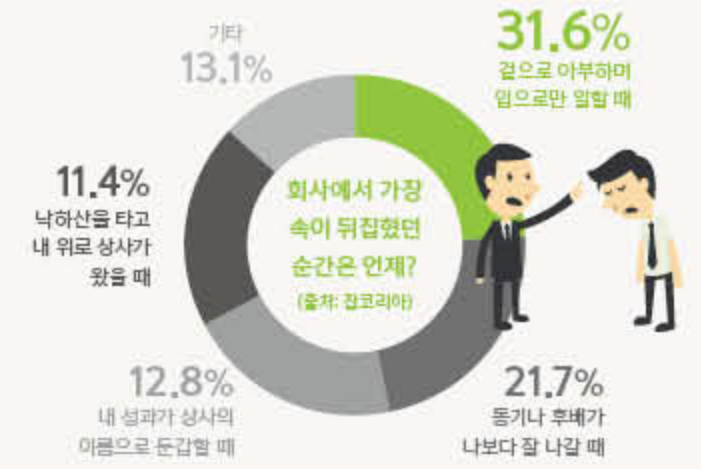
### 12:00

오전 바쁜 업무를 마치고 달려오는 허기. 직장인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음식은?



### 16:00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  
회사에서 가장 속이 뒤집혔던 순간은 언제?



### 18:00

퀴즈! 오후 6시 퇴근시간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 페인트,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준 한마디 원당한도상사 박정관대표



지금의 삶이란 자신을 인도해준 한마디의 가르침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다. 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빛이 되어준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번<삼화를 만드는 사람들>에서 만난 원당한도상사 박정관 대표도 마찬가지다. 선선한 바람이 찾아와 여름을 밀치고 오색빛갈 가을을 반기는 9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한마디 속 이야기를 듣기 위해 고양시에 위치한 원당한도상사를 찾았다.

### 인생의 2막을 열어준 이야기를 듣다

오늘 만난 원당한도상사의 박정관 대표에게 페인트는 인생의 2막을 열어준 숙명적 만남이라 말한다. 과거 보건대를 나와 서울근교병원 임상병리병동에서 근무를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친의 말 한마디가 박정관 대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해준 계기가 되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 페인트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권유에 잠시 당황했지만 생각해보니 어려서부터 페인트업에 종사하시는 아버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페인트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친근감이 컸어요. 그리고 월급쟁이 생활도 지겨웠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페인트사업을 시작해 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 부친의 한마디는 박정관 대표의 인생에 빛이 되어준 한마디가 되었고 이는 지금의 원당한도상사의 시작점이 되었다.



### 고양시에 삼화페인트의 길을 세우다

새로운 출발에는 설렘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법이다. 1981년 금천구 독산동에 처음 페인트 대리점을 설립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마다 쇠는 담금질을 할수록 단단해진다는 말처럼 경험을 쌓았고 이는 박정관 대표를 강한 사업가로 변모시켰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이 꽃을 피운 건 2001년 지금의 대리점이 있는 고양시 원당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시작했다. 박정관 대표는 삼화페인트가 가진 브랜드 파워와 그 동안의 노하우를 통해 지역 내에 수많은 경쟁사들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원당한도상사를 고양시 관내 탑 클래스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리점으로 성장시켰다.

### 고객 중심 경영으로 고객을 사로잡다

그렇다면 원당한도상사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제나 성실한 마음가짐으로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박정관 대표만의 경영철학 때문이다. "언제나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의 영업방식을 고집해왔어요. 고객의 회로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진정한 파트너라는 생각 때문이죠."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고객과 소통하면 이는 신뢰를 넘어 참된 믿음으로 삼화페인트와 원당한도상사에 돌아 올 것이라고 전한다. 박정관 대표 내외는 고객들에게 베풀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베풀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다. 이는 페인트사업을 처음 시작 할 때 많은 도움을 주신故 최재환 씨와의 추억 때문이다. "故 최재환 씨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고마웠던 분이예요. 어려웠던 시절 아무런 조건도 없이 대리점 담보를 서주셔서 페인트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원당한도상사도 없었을 거예요."

### 페인트는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준 영원한 동반자

삼화페인트와 함께 지내오면서 삼화페인트에 대한 애정도 깊다. 특히 제품에 대해 무한 신뢰를 보였다. "요즘 삼화페인트의 도료는 타제품이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합니다. 예전에는 건축용 도료만 높은 평을 받았는데 지금은 공업용 도료도 그 품질이 우수해졌어요. 특히 공업도료 중 스피롤탄과 스피타이트는 품질이 우수해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어떻게 삼화페인트를 신뢰 안 할 수 있겠어요." 박정관 대표는 삼화페인트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페인트 시장이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건축이나 공업분야에서 페인트를 대체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페인트 영역이 많이 줄었어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페인트 영역관리 및 확장을 위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관 대표에게 페인트란 삶이자 숙명이라 한다. 그만큼 평생을 함께해온 페인트가 인생에 있어 남다른 존재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고객들에 대한 진솔한 마음과 페인트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 찬 원당한도상사의 그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길 바란다. S

삼화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  
취재 코비즈



## 20년 차 영업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CM팀 오천근 부장

'삼화페인트'라는 이름 하나 믿고 지금까지 달려 온 시간만 어언 20년. 강산이 두 번 번하는 동안 좌충우돌 목소리 큰 오천근 대리에서 PCM팀을 이끄는 부장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삼화페인트 PCM 도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이 사람. 지난 호 주인공 총무팀 권영선 대리가 영업소 확장 건으로 인연을 맺게 되어 도움도 받고 결국 만족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해준 오천근 부장. 이번 '삼화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에서는 PCM팀의 심장 오천근 부장을 소개한다.

“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계성을 뛰어 넘어 삼화페인트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화페인트에는 터닝포인트가 되어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어요. ”

### 인연의 시작

주변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물들에 페인트가 안 발린 곳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색이 입혀져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익숙해서일까. 우리는 페인트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 오천근 부장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가 어떻게 페인트라는 신세계를 만나게 됐을까.

"지인께서 삼화페인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 다른 회사에 입사에 연수까지 받고 있었던 중이었죠. 궁금해서 기업 연감을 봤는데 앞으로 비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회사는 접고 삼화페인트 관리팀으로 들어왔어요. 이어 대리점 파트를 거쳐 당시의 PCM 팀장으로부터 차출되어 굴러 온 돌에서 박힌 돌이 돼버렸어요."

###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한 분야에서 16년을 일하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 낸 오천근 부장은 그야말로 PCM 분야에서 전뿔이 굼었다.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오천근 부장의 생존전략은 바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이다. 아침에 출근 하면 오늘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만큼은 밤 늦게라도 마무리 짓고 퇴근한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주어진 일은 무조건 해결해야 한다는 철칙이 생겼다. 일에 대한 철칙과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2012년 중국소재 곤명강철이라는 회사에 납품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중국어 한 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중국어가 능통한 신입사원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자료를 만들며 업무를 진행했어요.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야근 한 날을 세는 것 보다 임직 퇴근하는 날을 세보는 것이 더 빠를 정도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 노력의 대가로 납품업체로 선정됐어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뿌듯합니다."

###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야 할 때

굳이 다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일에 빠져 살아 왔는지 쉽게 짐작된다. 휴일에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하며 그간 쌓여 있던 스트레스와 피로를 푼다는 오천근 부장. 녹록치 않은 B2B 영업에서 오는 팽팽한 긴장감과 늘 부대끼는 관계 속에서 소소한 행복과 여유를 즐긴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 삼아 다시금 치열한 업무 현장을 분주히 누빈다. "국내 시장을 넘어 새로운 시장 판로를 개척하고 싶어요. 불안정한 경기와 중국의 물량공세로 우리나라 시장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들 해요.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계성을 뛰어 넘어 삼화페인트의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화페인트에는 터닝포인트가 되어 새로운 시작점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초석이 됐으면 해요."

오천근 부장은 노력의 대가 없이 꿈을 꾸지 않는다. 그간의 경험이 말해주듯 요행은 그 어떤 것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내태해지지 않으며 꿈을 향해 한결음씩 전진할 것이다. 선한 웃음과 눈빛 속에 담겨 있는 그 꿈을 향해. S



#### Notice

다음 호에서는 오천근 부장이 추천한 삼화페인트의 숨은 일꾼 김창경 유기합성개발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 S Focus

가족, 사진 그리고 이야기  
 취재 코비즈  
 사진 배봉희  
 장소 그림스튜디오  
 메이크업 조은메이크업

# 나의 가족이 바로 행복의 근원입니다

전창민 과장(전주영업소) 가족



삼화페인트 전주영업소의 전창민 과장에게 세상 그 무엇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들이 있다. 전창민 과장을 최고라 받들어주는 현모양처 아내 박정현 씨, 사춘기에 접어들어서인지 요즘 이유 없는 반항을 하지만 언제나 든든한 큰아들 승우, 항상 밝고 마음씨 따뜻한 열혈 축구소년 둘째 아들 승환이가 바로 그 보물들이다. 이 네 식구가 모여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던 가족 사진 촬영 그 현장을 삼화엔피플이 함께 했다.



### Notice

삼화엔피플이 삼화인분들께 가족사진을 선물합니다. 가족사진을 찍고 싶은 삼화인은 간단한 사연과 함께 연락처를 적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가족사진 촬영과 함께 앨범을 선물로 드립니다. 삼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speople@spi.co.kr](mailto:speople@spi.co.kr)

### 주말은 언제나 가족과 함께

“엄마 안갈래!”

사진 촬영 하기 전 메이크업 샵에 들러 곱게 화장을 하고 온 정현 씨를 보자마자 승환이가 한 말이다. “결혼식 이후에 이렇게 화장한 건 처음이에요. 두 아이를 키우다 보면 화장할 시간도 없어요. 남편 회사 덕분에 오랜만에 화장도 하고 기분 좋네요.” 평일에는 함께 할 시간이 적어 주말은 박물관·극장 나들이, 여행 등을 가며 오로지 가족과 보낸다는 전창민 과장 가족에게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는 아주 조금은 특별한 주말이었다.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는 전창민 과장이지만 아이들에게 최고의 친구 같은 아빠다. 축구를 좋아하는 승환이와 공 차려 나가기도 하고 함께 축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한다. 승환이에게 뛰어 놀 수 있는 친구라면 승우에게만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다. 사춘기 소년의 마음을 ‘아빠도 그런 그랬어라며 이해하고, 승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열린 자세로 곁을 지켜준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전창민 과장, 정현 씨, 승우, 승환이가 나란히 섰을 때 “아내보다 키가 더 커버린 승우를 보면서 언제 저렇게 컸나 싶어요. 언젠가 두 아이들이 제 키도 훌쩍 넘어 자신만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남자가 됐을 때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이 조금 먹먹하기도 하네요.”

### 가족이 있어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창민 과장의 또 다른 행복인 아내 정현 씨. 약간의 무뎠음이 배어있는 전창민 과장은 아내에게 어떤 사람일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남편이 딱딱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데, 요즘 사람들 말로 상남자 스타일이예요. 걸으론 저래 보여도 주변 지인들 엄청 쟁겨요. 그런 사람이 가족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15년을 함께 하며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것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항상 버팀목이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꼭 전하고 싶어요.” 아내의 칭찬을 들으며 속스럽다는 듯 별 소리를 다 한다. 말하지만 이내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는다.

낮선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처음엔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런 포즈 저런 포즈를 취하면서 많이 웃었고, 좋은 추억 하나 더 만들었다며 가족들은 전창민 과장에게 엄지 손가락을 치켜 든다. 가족이란 살아가는 행복의 근원이라 말하는 전창민 과장. 이런 가족이 함께 있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S**



컬러매거진  
글 이미지[질러개발팀 연구원]

## The 3rd SAMHWA Color Talk Seminar 2014 : 컬러와의 조우

지난 8월 29일,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룸 401호에서 The 3rd SAMHWA Color Talk Seminar 2014가 개최되었다. '콜라보레이션 위드 컬러(Collaboration with Color)'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컬러와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국내외 컬러전문가, VMD전문가, 건축가, 팝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특색 있는 컬러 담론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다. 컬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The 3rd SAMHWA Color Talk Seminar 2014 현장으로 안내한다.

### 컬러와의 조우

올해로 3호째를 맞이하게 된 SAMHWA Color Talk Seminar는 기존의 세미나 형식에서 탈피해 매년 새로운 형식으로 고객과 만나는 신개념 세미나이다. '융합'을 키워드로 고객들이 컬러를 통한 다양한 분야와의 소통,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콜라보레이션 위드 컬러(Collaboration with Color)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컬러 컨설팅 업체인 NCS Colour AB 회사의 컬러 디자인을 위한 체계(Flow) 설명과 2015-16년 트렌드 및 컬러디자인 방법, 삼화페인트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와 힐링 인테리어 가이드 등을 VMD전문가, 건축가, 팝아티스트와의 소통으로 진행되었다.

### Connecting the Dots

삼성 CS 아카데미 홍순아 본부장의 사회로 개막된 세미나는 올해 삼화페인트에 부임한 허성 사장(COO)의 환영사로 특별함을 더했다. 허성 사장은 환영사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양한 점들 속에서 특별한 새로움을 주고자 미래를 확장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를 주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트렌드를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자 마련하였다' 라고 전했다. 1부는 NCS Colour AB 회사의 부사장인 Karl Johan Bertilsson의 컬러 커뮤니케이션과 컬러 심리작용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실패한 컬러와 성공한 컬러에 대한 이야기, 늘 함께 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컬러, 그 컬러에 담긴 수많은 뜻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유쾌하게 풀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5-16년 Global Mega Trend는 Freedom Tree 이사를 맞고 있는 Latika Khosla의 강연으로 진행되었다. 내추럴 스토리와 어번 스토리 컬러 이야기를 통해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해외자료와 다양한 컬러감이 돋보이는 사진들이 눈길을 끌었다.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 김향란 이사와 함께한 3번째 시간에는 2015-16년 컨슈머 라이프 스타일과 힐링 인테리어 컬러 가이드를 발표했다. 색채 심리를 적용한 컬러테라피 인테리어 배색가이드와 공간에 따른 특징과 평형이나 공간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트렌드 컬러와 접목한 인테리어 공간을 제안했다.

잠깐의 커피 브레이크를 마치고 화려한 레이저쇼로 시작된 2부에서는 VMD(Visual Merchandising)전문가 이랑주 대표가 세계일주를 통해 얻어진 VMD의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상품 진열 시 도움되는 컬러 배치와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품진열 방법을 Before & After의 실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 있는 화법으로 전수했다. 조원용 건축사는 Architecture DNA라는 주제로 인간의 모든 지식과 정보, 기술이 담긴 인간이 이룬 가장 위대한 유산인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풀어냈다.



마지막 시간은 팝아티스트 김일동 작가의 스토리가 담긴 재기 발랄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림토크쇼로 진행되었다. 팝아트와 미디어아트를 콜라보레이션하여 아름다운 컬러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풍자를 통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생동감을 더했다.

### 진화하는 Color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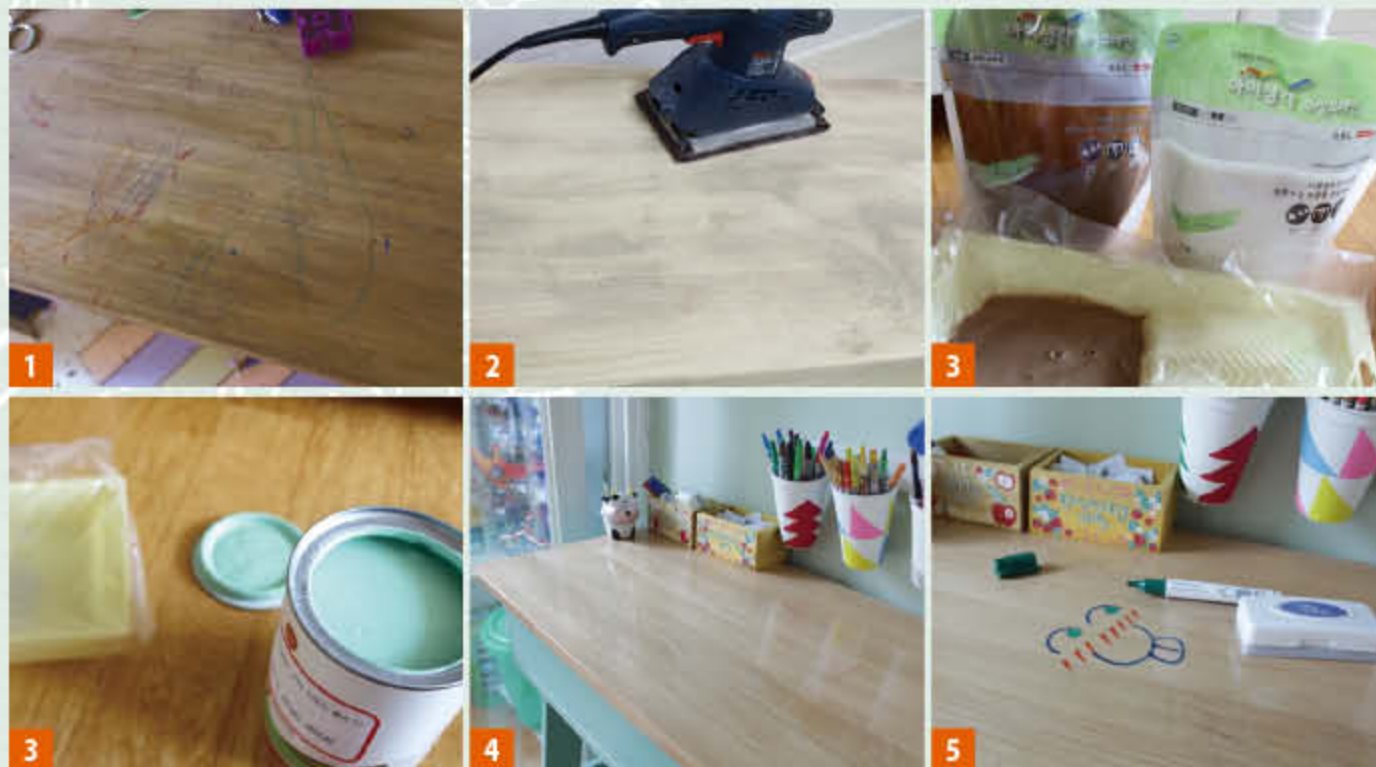
컬러는 어떤 것라도 융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매개체이다. 이번 세미나는 중요한 매개체인 컬러와 다양한 분야의 조우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자 하였다. 매회 새로운 방식으로 색채전문가들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SAMHWA Color Talk Seminar, 2015년 8월 더욱 새롭게 진화한 모습을 기대해본다. S

페인트레시피  
글 더클래시 리빙작가 '달빛코리'

## 스케치페인트 하나면 충분, 낙서가 가능한 우리아이 책상 만들기



벽이며 문이며 아무 곳이나 가리지 않고 낙서하는 아이들의 낙서본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중 책상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낙서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낙서로 인해 책상이 더러워진다 해도 낙서가 아이들의 협응력과 표현력, 창의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을 알면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가을을 맞이하여 우리아이들이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책상 만들기에 도전해 보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낙서가 가능한 책상을 만들까? 이러한 걱정은 삼화페인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케치페인트만 있다면 고민 해결! 지금부터 아이들의 즐거운 낙서타임을 전해줄 우리아이 책상 만들기 과정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 당신의 공간을 스케치하다

스케치페인트는 주변의 공간을 쉽게 화이트보드로 만들어 주는 특수 페인트입니다.

- 1 (Before) 온통 사인펜과 색연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아이 책상.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라면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심란하시죠! ^^;
- 2 그럼 우선 상판부터 깔끔하게 변신시켜주는 것이 첫 번째! 샌딩기를 활용하여 열샌딩 작업을 해줍니다. 어때요, 한결 깔끔한 모습으로 변했죠!
- 3 책상 상판은 아이생각 수성스테인 호두나무색과 투명을 섞어 농도를 낮추어준 후 곱게 발라줍니다. 이와 함께 상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톤 다운된 민트 컬러 더클래시 아토프리(SH S 2030-B90G)로 포인트를 주며 예쁘게 꾸며주세요.
- 4 마지막으로 아이들 낙서를 방지할 수 있는 마법의 페인트! 삼화페인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스케치페인트로 마무리하면 완성!! 화이트보드처럼 낙서를 하고 지울 수 있는 기능이 숨겨져 있는 스케치페인트를 활용하여 아이들이 이제 책상에 뭘 칠해놓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ㅎㅎ
- 5 (After) 어때요, 너무 멋진 모습을 한 책상으로 변신했죠! 작업을 하실 때 원목 나무 위에 바로 스케치페인트를 칠할 경우 나무가 페인트를 흡수하기 때문에 스케치페인트를 칠하기 전 수성스테인을 꼭 발라주세요. 여러분도 낙서가 가득한 책상을 보시면서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더클래시 아토프리와 스케치페인트를 활용해 우리아이만을 위한 특별한 책상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S



## 미래 그리고 철학, 더 그린관에 담아내다 LH공사 더 그린관 김현직 부장

주택은 공기나 물처럼 사람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좋은 환경과 쾌적한 삶을 위해 미래의 주거생활 모습을 상상한다. 사람들의 이러한 상상이 현실로 다가온 곳이 있다. 바로 LH공사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더 그린 미래주택기술체험관'(이하, '더 그린관')이다. 삼화페인트도 이번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여 LH공사와 함께 미래 주택의 기동이자 기초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런 더 그린관에서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한 고민과 철학으로 남보다 앞선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있어 만나고 왔다. 바로 '더 그린관' 김현직 부장이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는 미래주택의 메시지를 함께 들어본다.



**S** 안녕하세요! <삼화엔피플>입니다. LH공사 '더 그린관'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K** 최근 들어 친환경 주택이 각광을 받으면서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양한 주거공간에서 높은 효율의 에너지 절약 시스템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 속에서 2010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강남보금자리 사업지에 새 동지를 형성화하는 '더 그린관'이 개관했습니다. 옥상을 포함해 총 4층으로 구성된 '더 그린관'은 최첨단 친환경 기술로 이루어진 미래의 주거공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고효율에너지 분야, 친환경 재생 분야, 공간가변 및 리빙스타일, 그린 IT로 분류할 수 있는 70여 가지의 녹색기술 기자재를 분야별로 전시하고 있어 미래의 친환경 주거환경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입니다.

**S** 정말 다양한 체험공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더 그린관'을 만드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요? 그리고 있다면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K** 어려웠던 점이라면 이미 갖춰진 공간에 새로운 무언가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양한 아이템들이 항상 머리에

떠오르는데 공간 활용에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과 관련하여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찾아도 비용적 문제로 생각과 다르게 체험공간이 만들어 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래도 제 머릿속에는 언제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몸 속 가득히 '노력'과 '근성'이라는 두 단어가 깊이 축적되더군요. 이것이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새로운 지식을 계속해 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걷어가는 동안에는 '노력'과 '근성'으로 어려운 난제를 타개해 나갈 것입니다.

**S** 노력과 근성의 산물인 전시관에서 가장 애착이 가시는 전시관은 어디인지요?

**K** 어느 것 하나 애착이 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중간소음 전시관'이 가장 애착이 갑니다. 국내 최초의 중간소음 체험공간이기도 한 이곳은 기획부터 제작까지 가장 많은 고민과 시간을 투자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기획 당시 더 그린관 내 공간이 부족하여 자투리공간을 활용하여 전시관을 구성해야 했습니

다. 이로 인해 공간 활용이나 표현에 제한이 많았죠. 특히 전시관을 주로 방문하는 중·고교생 30명이 한번에 들어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고민 끝에 체험공간을 이원화하여 구성하기로 했죠. 90년대 신도시의 슬래브 구조의 침실을 2개 층으로 재현해 상부층의 소음유발 행위와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또 하부층에는 마이크와 수음기를 설치해 상부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체험관 관람석 전장의 스피커를 통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원화된 구조로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주요방송 매체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체험관입니다.

**S** 더 그린관에는 삼화페인트 전시관이 있는데요, 페인트 전시관을 만들게 된 계기와 어떻게 파트너로 삼화페인트를 선정하게 되셨나요?

**K** 페인트는 어려운 용어로 인해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같이 20여 년을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에게도 페인트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종사자나 학생들이 페인트에 대한 개념을 바로 알고 올바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자리마련을 위해 페인트 전시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트너를 찾던 중 삼화페인트가 가장 먼저 눈

에 들어왔습니다. 삼화페인트는 친환경적 이미지로 더 그린관의 취지와 가장 잘 부합하는 기업이었죠. 삼화페인트가 보여준 적극적인 모습에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들어 삼화페인트는 친환경 페인트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며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잘 어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더 그린관의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점에서 삼화페인트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S**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K** 모든 주거문화는 인간의 행복과 안식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즉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말하지요. 이 생각은 저나 제가 근무하는 LH공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더 그린 홍보관은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와 철학이 공존하는 '더 그린 미래주택기술체험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더 그린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독자 여러분도 꼭 한번 내방하셔서 미래 주거공간의 모습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S

## S Focus

삼화페인트스토어  
글 코비즈

### 삼화페인트스토어 6·7·8호점 오픈

신개념 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스토어의 6호점 덕산건설점, 7호점 유주도장점, 그리고 8호점 두하도장상사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그동안의 낡은 옷은 던져 버리고 새롭게 단장한 세 대리점을 삼화엔피플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 삼화페인트스토어 덕산건설점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덕산건설점은 대리점 안에 배어있는 페인트 냄새가 고민이었다. 페인트 가게에서 페인트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은 아니었다. 이번에 삼화페인트스토어로 리뉴얼하면서 그 고민이 깔끔하게 해결됐다. 적재공간과 접견공간이 분리되어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최재갑 대표는 "특히 DIY에 관심 있는 일반고객들이 세련된 삼화페인트스토어의 모습을 보고 들어와 상담을 받는 일이 많아졌어요."라며 소비자층의 폭이 넓어진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삼화페인트스토어는  
편하다.



#### 삼화페인트스토어 유주도장점

대전광역시 동구에 자리한 유주도장점은 건물신축과 함께 이와 어울리는 대리점의 모습을 찾던 중 삼화페인트스토어를 알게 되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를 생각해 왔던 주현성 대표는 대전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대리점 모습과 세련된 분위기에 매료되어 삼화페인트스토어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주현성 대표는 "앞선 행보에 자부심도 생기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삼화페인트스토어를 운영할 것입니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



삼화페인트스토어는  
앞선 발걸음이다.



#### 삼화페인트스토어 두하도장상사점

광주광역시 동구의 두하도장상사점은 삼화페인트의 추천으로 리뉴얼을 진행하게 되었다. 백종욱 대표는 전체적으로 밝고 깨끗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만 그보다 적재공간과 매장이 분리된 것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그만큼 제품을 손쉽게 꺼낼 수 있어 손님들에게 대응을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종욱 대표는 삼화페인트스토어를 계획하고 있는 점주들에게 "삼화페인트 담당자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며 조율이 이루어지면 장점 가득한 삼화페인트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조언을 했다. S



삼화페인트스토어는  
기쁘다.

# News Focus

삼화페인트

■ 삼화페인트 공주 분체 공장 오픈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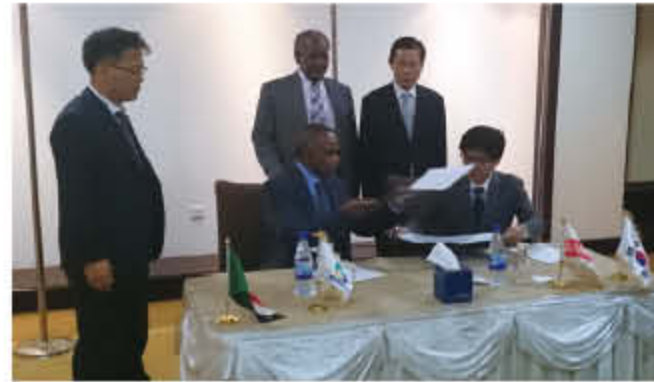


삼화페인트는 지난달 29일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탄전산업단지에서 삼화페인트 공주 분체 공장 오픈식을 개최했다.

삼화페인트 공주 분체 공장은 삼화페인트의 신성장동력인 분체도료의 생산량 증가와 안정된 제품 품질을 확보하여 효율적 업무와 함께 중·

남부권 판매 활성화를 목적으로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이날 오픈식은 오진수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공주 분체 공장 견학과 설비 규모 등의 설명, 연구/QA/생산팀장들과의 Q&A를 통해 당사 분체 사업에 대한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공주 분체 공장의 준공으로 거래처 도로 생산 과정에 대한 이론 소개 및 실제 견학을 통해 분체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도 증가와 신규 설비 도입을 통한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도 향상을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취재기자 권혁준(마켓지원팀 과장)

■ 삼화페인트,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을 개척하다



삼화페인트는 지난 6월 18일 국내 최초로 수단의 페인트 업체인 모한디스 회사와 자동차용 페인트 생산 계약을 맺었다. 모한디스는 현지 최대 페인트 업체로, 삼화페인트는 아프리카 현지 진출을 위해 6개월간 공을 들여왔다. 국내 페인트 회사가 아프리카 현지 업체와 손을 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화페인트는 모한디스에 원료를 공급하고 자동차 페인트 조색과 관련한 기술이전을 원칙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모한디스는 현지에서 자동차용 페인트를 생산해 삼화페인트와 함께 아프리카 시장을 겨냥한 유통과 마케팅에 들어갈 예정이다. 수단에선 한국산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시장의 60%를 차지할 만큼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수출은 원가적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현지 자동차 회사를 공략하기 위해선 현지 업체와 손을 잡는 것이 급선무였다. 파트너가 된 모한디스 역시 삼화페인트와의 협력을 크게 반겼다. 자동차용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와 달리 고도의 조색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현지 생산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며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취재기자 권혁준(마켓지원팀 대리)

■ 삼화페인트,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한 NCS 컬러 교육 참여



지난 6월 9일부터 열흘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NCS Colour Advisor Course가 진행되었다. NCS Colour Advisor Course는 NCS

에서 제공하는 아카데미의 주요 과정으로 컬러&디자인의 전문가를 양성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총 3가지 과정(Colour Perception and the NCS System, Exterior Colour Design, Interior Colour Design)으로 이루어진다. 3가지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최종 exam



에 합격할 경우 NCS Colour Advisor의 명성이 주어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NCS Colour AB 사의 컬러 전문가로 Teacher의 자격을 획득하여 전세계적으로 NCS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NCS(Natural Color System) 컬러의 가장 큰 장점은 자연에서 비롯된 컬러군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컬러의 매칭이 꽃과 나무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모두 보여지는 사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인지 NCS가 갖는 1950 Standard 컬러가 더욱 우리에게 친근하게 느껴지며 내외장재 그리고 도로 컬러에 가장 적합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스웨덴 교육과 연계하여 8월 28일 삼화페인트 홈엔트에서는 NCS와 콜라보레이션으로 'Interior Colour Design Course'의 프로그램을 3시간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홈엔트의 VIP와 더클래스 리빙작가 등 20명이 참석하여, 어느 교육 때 보다 열정적이고 즐겁게 진행되었다. 해외 유명 강사를 초빙한 이번 컬러교육은 해외의 고급 컬러 교육과 동일하게 이루어져 NCS에 직접 가지 않고도 고급 컬러 교육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취재기자 이미리(컬러개발팀 연구원)

## S Focus

포인트포커스  
글 박철희 [마켓기획팀 대리]

# 컬러로 공간을 지배한다! 삼화페인트 신제품 소식

삼화페인트에서 따끈따끈한 신제품들을 출시했다. DIY와 실내인테리어 분야에 파란을 일으킬 두 제품을 소개한다.

## CHARMING METALIC

ENVIROMENTALLY FRIENDLY ARCHITECTURE



### DIY 시장의 새로운 반전, 차밍 메탈릭

지난 5월 삼화페인트는 외산브랜드가 점유하고 있는 DIY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변화되고 있는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하고 포화된 시장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우수한 메탈릭 질감을 표현할 수 있는 '차밍 메탈릭'이라는 제품을 선보인 것이다.

차밍 메탈릭은 다양한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환경마크 인증을 취득하는 등 우수한 친환경페인트로 소비자들에게 깨끗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등의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실제 아파트, 상가, 관공서, 호텔, 교육시설(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에 적용되어 포인트 컬러로서의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

삼화페인트는 차밍 메탈릭을 통해 개성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을 연출하길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불편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담은 DIY시장의 새로운 반전을 제시할 것이다.

## 시멘트 데코 CEMENT DECO



### 모던 빈티지·시멘트 질감 그대로의 연출, 시멘트 데코

삼화페인트의 올 가을 제품 컨셉트는 트렌드와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 낸 모던 빈티지 스타일이다. 매장의 인테리어 분위기를 빈티지 느낌에 실용성을 결합하고, 심플하면서 모던 빈티지한 느낌을 구현할 수 있는 노출 시멘트 마감재 '시멘트 데코(CEMENT DECO)'가 대표적이다.

공간을 명품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시멘트 데코는 수용성 친환경 제품이며, 강도가 우수하고 화재 시 유해가스 배출이 거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고급스럽고 빈티지한 실내 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상가, 주거, 사무구역 등의 인테리어 마감재로 적용될 수 있다. 파우더 액상타입의 벽면 용과 액상과 파우더가 혼합 사용된 바닥용 등 2종류가 출시되어 있다. 컬러는 벽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추럴 그레이, 다크 그레이, 그린티 그레이 등 3종이며, 바닥용으로는 내추럴 그레이, 다크 그레이와 함께 코코아 브라운, 빈티지 그린, 인디안 블루 등 5종이 마련돼 있다.

고급스럽고 빈티지하며 내추럴한 실내 인테리어 마감재 시멘트 데코. 삼화페인트의 기술력과 장인의 손으로 이루어 낸 올 하반기 기대되는 핫아이템이다. S

## S Focus

삼화나눔이야기  
글 김예슬[소셜마케팅팀 대리]



# 삼화페인트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붓질,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 탄생!

연평도 '평화 그리기'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벽화그리기 사업을 지원해온 삼화페인트에서 행복한 변화를 향한 아름다운 붓질을 시작했다.

삼화페인트는 체계적인 벽화그리기 지원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삼화페인트와 함께 희망을 그릴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을 창단했다.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은 삼화페인트 페이스북과 블로그 그리고 사내 공모를 통해 이름공모를 하였으며, 특색 있는 벽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재능 있는 벽화그리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이를 통하여 꿈과 희망이 가득한 이야기가 있는 거리를 조성하여 어두운 골목길 환경 개선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벽화거리를 완성해 나갈 전망이다.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은 9월27일 [서울 노원 경찰서와 함께하는 청소년 비행예방 벽화그리기]와 10월9일 [Lifehope와 함께하는 생명보듬 벽화그리기]를 시작으로 아름다운 벽화를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삼화엔피플에서는 <삼화나눔이야기> 코너를 통해 다양한 벽화거리 조성에 앞장설 벽화봉사단 <삼삼한 화가들>의 행복나눔 이야기를 독자분들에게 전할 것이다. S



# Brown

SH S 5020-Y50R



## 강원도 강릉 커피와 바다가 만난 그곳, 강릉 없던 낭만도 생길지이다!

조금씩 찬 기운을 머금은 가을. 바람과 바다 속에서 은은한 커피향이 풍기는 가을 강릉의 색을 아시나요? 낭만 가득 따뜻함이 묻어나는 커피색 분위기의 강릉의 모습은 웬지 낯설지 않다.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변모시킨 커피거리와 가을이면 열리는 커피축제까지 지금 강릉의 모습은 낭만 그 자체이다. 그냥 보내기 아쉬운 이 계절, 강릉으로 떠나보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없던 낭만도 생길 것이다.

Travel Tip

커피 여행을 떠날 거라면 강릉 커피축제 홈페이지(www.coffeefestival.net)에서 강릉 커피 지도를 미리 확인하자. 홈페이지에서는 강릉의 다양한 커피 전문점을 관역 별로 구분해 놓았다.



### 바다에서 커피향이 난다

커피해변으로 유명한 강원도 강릉의 안목항 해변거리는 커피 애호가들의 성지이다. 바다는 커피의 향을 더욱 깊고 진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만들고 서늘한 가을 기운은 커피와 최고의 궁합을 이루어 가을 안목항은 다른 계절보다 특히 북적거린다. 카페 안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어느 누군가는 홀로 앉아 커피의 맛을 음미한다. 또 다른 누구는 한 손에 커피 컵을 들고 산책을 하며 커피를 즐긴다. 이처럼 강릉 안목항은 사람 많은 도심 속 카페나 유럽의 노천카페와는 다른 낭만이 있다.

그저 한적하기만 했던 어촌 안목항이 커피거리가 조성될 정도로 커피의 메카가 되기까지 그 시작은 2,000년 대 초반 '길 다방' 커피 자판기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것이 단순 커피 자판기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오산이다. 이곳의 자판기는 '자판기 바리스타'라고 칭할 정도로 기계에 따라 콩가루를 넣기도 하고 미숫가루가 들어가는 등 맛이 달랐다.

그리고 우리나라 바리스타 1세대라 불리는 박이주 씨 등 커피명인들이 안목항에 가게를 운영하면서 지금의 커피거리가 형성되었다. 이곳에서는 다방커피를 비롯해 원두를 직접 볶는 로스팅 커피, 뜨거운 물을 내려서 만든 드립커피, 작은 기구에 커피를 채우고 열을 가해 뽑아 내리는 모카포트식 커피, 직접 알코올 램프에 가열해 추출하는 사이폰식 커피, 유리 비커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더치커피 등 모든 맛을 느낄 수 있어 그야말로 입맛 따라, 취향 따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사실 커피와 강릉의 조화는 처음 알게 된 이들에게는 낯설다.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등 우리나라 전통의 멋을 자랑하는 곳에 이국의 땅에서 온 커피라니. 하지만 강릉 강동면 남향진 한송정(寒松亭)이 우리나라 차(茶) 문화의 발생지였다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보면 그리 낯선 조합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과거 신라 화랑들이 동해안의 정자에서 다도를 배웠듯, 요즘 사람들은 강릉에서 커피를 즐긴다. 우리나라 전통의 차문화가 세월의 변화와 함께 커피로 변했을 뿐 차한잔을 즐길 줄 아는 우리 조상들의 멋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 서있는 것만으로도 낭만인 가을의 강릉

강릉은 커피만 유명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발길 닿는 모든 곳이 여행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릉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그 중에 경포호를 따라 자리하고 있는 선교장이 대표적이다. 선교장 그 자체에서 전해지는 고즈넉함이 가을과 어우러지며 가을 강릉 여행의 낭만은 절정에 오른다. 선교장은 세종대왕의 둘째형인 효령대군의 11대손인 이내번이 1703년에 건립했으며, 대문이 달린 행랑채와 안채, 사랑채, 별당, 사당 및 연당과 정자까지 갖춘 조선 후기 전형적인 상류주택이다. 20세기 한국 최고의 전통가옥으로 선정되기도 한 선교장은 입구에서부터 그 위엄 있는 자태를 뽐낸다. 이곳은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인기가 좋다. 99만 규모의 사대부가 사용했던 상류저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보수상태가 훌륭하기 때문이다. 영화<식객>에서는 이곳을 배경으로 두 주인공이 요리대결을 펼쳤으며, 드라마<궁>과 <황진이>에도 등장했다.

아무것도 쉬이지 않고 강릉의 가을 그 자체만의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단연 가을바다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현화로는 양 엄지를 드는 것으로도 모자랄 정도로 동해안 최고의 해안 드라이브 코스다. 심곡마을에서 금진항까지 2km 정도의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달리는 길이다. 바다와 맞닿아 달리는 도로인데다 도로와 해수면의 차이가 2m 가 채 되지 않아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파도가 도로를 삼킬 듯 달려들어 짜릿함과 동시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까지 맛볼 수 있다. 현화로에서 계속 남쪽으로 향하면 정동진이 나온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태양과 넘실대는 바다는 가을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다. S





카툰 in 마켓  
글·그림 정현영

6화. 남자들의 삼화페인트 이야기

# 마녀사냥 편

저는 영화배우 이영애를 닮은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인 30대 초반 남성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제 여자 친구는 페인트칠하는 재미에 너무 빠져 있어서 데이트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책장, 화장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지난 제 생일에는 조카들 장난감을 새로 칠해주느라 결국 혼자서 생일을 보내야 했답니다. 전 어떡하면 좋죠?



아니, 왜 그래요? 이게 어려워요?

아무래도... 어렵죠.  
에이, 페인트칠하느라 시간을 잡아먹어서 데이트를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물하면 되죠.

아니, 그래도 따로 떨어져, 못으로 칠하고 또 말리고, 이것저것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몰 모르시네. 삼화페인트의 스무디 스테인은 무스 타입으로 돼 있어서 작업도 간편하고 건조 시간까지 빨라서 작업 시간도 엄청 단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테인이 뭐죠?

스테인은 목재에 색이 스며들어서 결을 살려주는 식이고 페인트는 나무에 막을 형성해서 페인트로 덮어버린다는 개념이죠.

아, 이점에 그럼 우리 그런 라이트 박스도 스무디 스테인으로 칠하면 좋겠네요.  
오오- 좋은 생각인데? 나는 밤 나무색!



Theme로 말해요  
글 코비즈

##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생각나는 '그 노래'

누구에게나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지고, 감성이 촉촉해지며, 가슴에 온기가 도는 노래가 한 곡쯤 있기 마련이다. 특히 어디론가 달려가고 싶을 때나 떠나고 싶을 때, 혹은 신바람이 날 때 내 가슴 깊이 떠오르는 그 노래를 모두와 함께 나누고 싶다.



### SES '달리기'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 버린 것을.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은 힘에 부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희망의 빛이 보인다는 이 노래는 지금 들어도 힘이 솟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_마켓지원팀 박지영



### David Guetta 'Play Hard'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나요? 미쳐보고 싶나요? 스트레스를 한방에 날려버리고 싶나요? 정신 줄을 놓고 싶나요? 그렇다면 단연코 David Guetta의 'Play Hard'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힐링을 시도하는데, 한 번은 친구랑 차 안에서 미친 듯이 소리치다 사고가 나기도 했죠. \_; 여러분은 꼭 안전하게 즐기시길. 흑흑. \_마켓기획팀 박철희



### 란 '어쩌다가'

저는 군대 시절에 7년 사관 여자친구에게 버림 받고 야간 근무 복귀 후 야식을 먹는 순간 라디오에 나오는 이 노래를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그때 당시는 탈영이라도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도 할 수 있네요. \_분체도료팀 박주현



### 블루베리 '오늘도 만날래요 내일도 만날래요'

엄청 달달한 가사를 가지고 있는 노래.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담은 건데,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의 두근거리는 설렘을 잘 표현하고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예뻐서 노래를 듣다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사랑에 빠질 것처럼 두근거린다고요. 여행을 떠나는 연인들에게 강추! 까악~ \_소셜마케팅 김예슬



### 마이티마우스 '랄랄라'

스트레스 때문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 마우티마우스의 '랄랄라'라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나 오늘 떠날 거야 나를 찾지 말아줘 저 뜨거운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신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한번씩 들으며 대리만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_플랜팀 김재민

다음 호 주제는 <나의 기쁨이 담긴 바로 '그 영화'> 입니다. 나의 히로에러이 담긴 삼화가족들의 영화를 소개해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CJ상품권 2만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삼화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는 이쪽으로 =>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 speople@spi.co.kr



문화를 드립니다!

[삼화엔피플]에서  
독자 여러분께  
문화를 선물해 드립니다



회사생활의 활력소! 우리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담은 사보 <삼화엔피플>이 독자 여러분의 참여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삼화엔피플에 대한 소감, 제안 사항, 참여 신청,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영화 관람은 물론 외식, 쇼핑 등이 가능한 **CJ상품권**을 마구마구 싸드립니다.

응모는 이쪽으로 ➡ 삼화엔피플 공식 이메일주소 | [speople@spi.co.kr](mailto:speople@spi.co.kr)  
보내실 때는 이름과 소속, 주소, 연락처를 꼭 써주세요~!



독자 이야기가 담긴 빨간 우체통

언제나 관심을 가져주시는 독자분들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삼화엔피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너 제안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잘못된 일본 용어가 공공연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페인트 쪽에서도 많은 게 사실이고요. 일본 용어를 순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는데 삼화엔피플이 조그마한 기여를 했으면 합니다.  
대전영업소장 김종록 님

에드ريان 윤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런 전시가 있다는 것을 진작 알았으면 갔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삼화엔피플>에서 생생한 사진으로 전해주셨으니 만족합니다!  
전북 전주시 노지혜 님

'삼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리삼화페인트 대표님의 기사 중에 '힘들 거름도 없었다'라는 문구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달고 사는 제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전 중구 김수운 님

<삼화엔피플>의 키가 부쩍 자랐고, 그만큼 실린 내용도 풍성해졌습니다. 매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로 저를 즐겁게 해줄지 기대 되네요!  
경북 김천시 서창덕 님

'카툰인마켓'을 매호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우수한 제품과 친근한 캐릭터,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해 주셔서 그런지 읽는 내내 즐거움을 줍니다. 이번에 실렸던 스케치페인트에 대한 내용도 정말 유익했습니다!  
경기 포천시 이춘임 님

'숨은 일꾼을 소개합니다'라는 코너를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삼화페인트에 이런 사람이 숨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프로정신'에 공감하면서 저도 진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남 당진군 정희원 님

Quiz 1.

아이엠그라운드 나라 이름 대기!  
사진에 보이는 국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힌트

1. 그레이트브리튼섬에 속한 4개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2. 가성용 축구선수가 현재 뛰고 있는 스완지 시티 구단이 있는 나라입니다.

Quiz 2.

당신을 위한 두뇌 혁명 추리 퀴즈!

들뜸난 거짓말

면허는 있지만 차가 없어 아버지의 차를 빌려 타야 하는 철수는 매번 몰래 차를 몰고 나갔다 걸려 혼나기가 부지기수다. 어느 날 밤, 철수는 친구 집에서 열리는 파티를 가기 위해 아버지 차를 몰래 몰고 나갔다. 아버지가 깨기 전에 차를 제자리에 놓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서둘러 돌아와 차고에 주차를 하고 자동차 키를 제 위치에 가져 놓으려던 순간, 철수는 아버지와 마주치게 된다. 철수는 이제 막 차를 가져가려 했던 참이라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아챘다.

Q. 아버지는 어떻게 철수가 몰래 운전을 하고 방금 돌아온 것을 알아챘을 수 있었을까?

- 철수 입에 음식물이 묻어 있어 알 수 있었다.
- 자동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었다.
- 방금 시동을 끈 엔진 때문에 뜨거워진 차량의 본넷에 손을 대어 알 수 있었다.



당첨을 축하 드립니다.

축하! 축하! 축하 드립니다. 삼화엔피플 퀴즈코너 '문화를 드립니다'에 응모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장인 박정식 전무님과 레인보우 기자단의 공정한 추첨을 통해 총 5분의 당첨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지난 호 당첨자

내화도로팀 박의철 님 / 해외지원팀 최희정 님 / 경기도 수원시 박성남 님 / 전자재료팀 이우영 님 / 연구기획팀 윤대봉 님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 드리며, 앞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0 삼화엔피플 2015 캘린더 이벤트 공지

<삼화엔피플>에서 2015년 캘린더를 제작하여 독자분들께 선물합니다. vol. 13, vol. 14를 보시고 독자퀴즈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드립니다. 2015년을 함께 할 <삼화엔피플> 캘린더!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무스는 머리에만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작업 가능!

스·무·디·스·테·인

무스형태로 나오는 스프레이 방식의  
신개념 페인트!

NEW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SAMHWA 삼화페인트